



2 대학 용인배움터 아를제 노천에서의 입학등반	3 농활특집 3박 4일간의 기차농활동행 취재기	4 사회 모든 대학생들이 외친 '이리크 파병 반대'	5 문화 어성훈인에 대한 - 외대생 인식조사 -
--	--	---	---

서울 총학, "4대 과제 반드시 이행하겠다"

지난 8일 정총, 정족수 채우지 못해 무산... 안전보고로 대신해

서울배움터 정기학생총회(정총)가 지난 8일(수) 노천극장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재학생인 68명 가운데 500여명이 참가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원래 논의할 안건 내용을 짧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는 △신문발송 △개회선상 △전학대회 보고 및 상반기 총학생회 평가 보고 △비상학생총회 보고 및 재단부서 보고 △총학생회 하반기 대외 과제 △집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비상학생총회 보고 순서에서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06)군은 재단과 관련 '민주적인 개혁 인사가 서로 견제해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명재단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논의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는 재단 부흥 보고 순서에서 "교육개혁이 4·2·2·1 추진을 사실상 꺾었다"며 이제 재단 구성의 막바지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총학생회(총학)는 남은 일기 기간동안 이행 할 4대 핵심과제로 △재단공명화 투명 △대학교 개혁 개혁 운동 △반민반대 평화수호, 이리크 파병 반대 △학생회 건설을 제시했다. 총학측은 "지난 10여년 동안 재단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듯 그 의지를 이어받아 7300 학생들이 주인되는 하반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학생회 건설에 대해 총학측은 운동권과 비권을 구분하고 학생들 자

신을 주인되는 학생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앞서 진행했던 상반기 총학생회 평가 보고 순서에서 총학측은 올초 제시했던 10대 과제를 평가하며 상반기에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안에 대해 더욱 비중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요구안 중에 많은 부분이 이행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행정도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학에서는 앞으로 공약과 상반기에 제시했던 62개 요구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중국문화 연구제도를 교육목표기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2부 순서로 공명재단 건설과 이리크 파병금지·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애국대 결의의 밤 '나비처럼 지열하게 가 서양어대 학생회장 이재정(영어 97)군의 진행으로 계속됐다. 여는 공연으로 사회대 '발발'과 사범대 '한발'이 나와 '새물'과 '우리 하나되어'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등록금 부정 모반단위로 한국교육과가 선정됐는데 이유로는 과 요구한 재출 후 책임지는 모습이 돋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이리크 파병반대의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외대인 공동 대학원회 가운데 한 사람이 동안어대 학생회장 이현(중국어 00)군이 나와 이리크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외대인 모두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이어 72주년 학생의 날

을 이날에 사회대 학생회장 이상근(신문방송 00)군이 이 날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리며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 대회에 함께 참가하고자 강조했다. 이날 2부 행사는 재단공명화와 이리크 파병반대의 열의를 비는 의미에서 학생들은 모두 손에 촛불을 켰다.

회의가 끝난 뒤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06)군은 "회의가 성사되지 않아 아쉽

다. 불과 열을 전 비상학생총회의 열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한결같이 재단 개혁의 의지를 보여줘 뜻깊었고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가한 최두순(서양·노어 03)군은 "다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적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재단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진 기자



▲ 지난 10월(금) 대총회에서 있었던 '이리크 파병반대 대학생행동'의 날 집회에서

서울, 파병반대 움직임 활발

'이리크 파병 반대'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배움터에서도 '파병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9일(목) 오후 12시 30분 도서관 앞에서 '이리크 파병반대'를 위한 공동대학원회 주최로 이리크 반전 평화회의 반전(보안단체지원)을 할 것을 지원할 기차부(장)를 초청, '이리크 파병 반대, 반전 평화회의'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이리크 반전 평화회의'가 열렸다. 그곳에 우리의 가족, 형제, 친구를 보낼수는 없다. 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파병 반대 투쟁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던 반전위원회

소속 김은영(정책학과대학원 3)장은 "좋은 강연이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많은 학우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4시 30분부터 우리학교 정문에서 약 40분에 걸쳐 총학생회와 반전위원회의 주최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을 주최한 총학생회 유복재(사회·신문방송 06)군은 "이리크 파병의 부당함을 알리고 다음날 있을 10·10 대학생 행동의 날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전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0일(금) 오후 3시, 대학교 마로니에 공영에서는 이리크 파병반대와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이리크 파병금지 10·10 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리크 파병반대 결의발언과 가리행진으로 진행됐다. 집회에 참가했던 김남열(동양·중국어 03)군은 "평화로운 이리크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

하면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파병을 지지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집회에 참가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이번 달 29일(목)부터 학생의 날인 다음달 3일(월)까지 '이리크 파병반대'를 위한 '이리크 파병금지 10·10 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를 열었다. 2차 공동행동의 날을 시발점으로 이리크 파병반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진 기자 oedapress03@hanmail.net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평가한다

올해도 역시나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 관계자나 학생에 따르면,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받기 위해 학교와 사립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서열화 조장' '공정하지 못한 평가기준' 등. 그들이 평가거부를 하는 이유, (외대학보)가 들어왔습니다.

중앙일보측은 대학평가 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대학평가가 대학평가를 도모했다는 주제를 그들만의 평가기사를 실었습니다. 과연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각 대학의 발전을 도모했을까요? 물어볼까요?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지난 2000년부터 올 200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살펴봅시다.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마디로 '학교발전 0%'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중앙일보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외대학보) 주제거는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릴 것을 확실합니다. 주재기침 oedapress@hanmail.net

지난 9, 10일(금) 용인배움터 구속학생 석방

용인배움터 동양대학학생회장 장유리(노어 01)장을 비롯 추승미(동양·노어 01)·지혜민(서양·영어 03)장이 지난 9일과 10일 집행유에 선고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공판에서 장유리, 지혜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추승미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풀려났다. 추승미, 지혜민장은 지난 8월 7일(수) 미군 사관학교 내에서 스트라이커 부대의 군사훈련 중과 미국의 대북전제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던 도중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폭력행위, 징집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됐다. 장유리, 추승미, 지혜민은 8월 9일(목) 전 날 구속된 학생들을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

송하던 차량을 저지하여 형의하던 도중 공무 집행 방해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같이 연행된 최교훈(동양·노어 07) 양은 지난달 17일(수) 최종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장유리 학생은 추가기소를 이유로 예정했던 공판이 취소 되기도 했다. 이들 학생은 공판에서 동거의 우발성과 군중심리의 작용, 폭력의 경미함, 학생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구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장유리양은 '정부의 정도를 넘어서 처벌과, 언론의 과장 보도로 이번 사건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2달 간 자리를 비운만큼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전영희 수습기자

등간고사 관례로 다음 오는 11월 3일(월)자로 발행됩니다.

당신이 채워주세요

용인배움터 70기 수습기자

신청기간: 10월 17일(금)까지

신청처: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문의처: oedapress@hanmail.net

전화: 031-330-4112

당신이 채워주세요

용인배움터 70기 수습기자

신청기간: 10월 17일(금)까지

신청처: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문의처: oedapress@hanmail.net

전화: 031-330-4112

한총련 간부 수배결정, 철회돼야

▲결정결과 지난 1일(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의장을 포함 핵심간부 2명들을 징역 수배하고 나갔다. 경찰청은 이번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지난 5-10기 한총련과 다를 바가 없고 5·18 광주사태와 스트라이커부대 투쟁을 이유로 수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고 한총련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한총련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한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맞닥뜨린 한총련 정세대의장도 한바탕을 해심과 제로 삼아, 사법당국에게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이유였던 강경과 규탄을 비호했다. 또한 한총련 내부에서 학생들과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겠다는 '새로운 학생운동'이 는 의외는 등 한총련은 근본적인 변화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외면한 제, 사법당국은 강령과 규약에 바뀌었지 근본적으로 이적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검증가능하고 지의적인 이유를 들어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가운데, 이번 수배결정은 '정부가 이리크 파병결정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18광주사태의 직후에 검증된 법부수배결정 '사위'와 이적규정은 별개라고 밝힌 것을 생각하면 이해와서 그것을 이유로 수배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지 석연찮은 느낌이 든다. 이리크 파병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한총련의 지도부를 수배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한총련 대변인인 유대식 경희대 총학생회장도 "파병반대'라는 대세를 꺾기위한 공안단속의 탄압으로도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명분없는 이리크 파병의 반대를 이유로 기존의 말을 뒤엎는 것도 문제지만 수배결정이 본질은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의 구상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의위원 대표자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일괄적으로 수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욕있고 비민주적인 이번 수배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편집장

이아람

언젠가 환하게 빛날 육등성의 멜로디



어릴때부터 다짐에 내려졌다가 비탈에서 기
타 치면서 후렴구를 먼저 작곡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이렇게 쓰일 줄은 정말 몰
랐죠"라고 말하면서 "후속을 전후로 해서 이
곡을 완성하게 됐어요. 가사는 예전에 작사한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썼고요. 곡에서 호소한
육등성은 저 자신을 뜻하는 말이에요"라고 덧붙
었다.

그물결상에서부터 곡 완성까지 모든 것들이
단기전에 이루어진 것만 같았다. 하지만 FBS
OST 가요제에 참가했던 보컬 우리(서양·
블어) 00(상)을 비롯해, 워키토기 멤버들은 그
들의 결성되기 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실
력을 쌓고 있었다.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이번 가요제를 통해
엄연히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직 정식
동아리가 아닌 만큼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터이다.

이에 대해 현 군은 "연습실 문제가 가장 컸
어요. 그래서 동아리방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연습했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연습하
거나, 저녁 11시에 나와서 밤새도록 연습하
기도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몸은 힘
들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경
쾌했어"라고 웃으며 덧붙였다.

가요제 공연은 맘에 들었는 질문에 현 군
은 "워키토기 첫 공연이라고 게다가 저희가 참
가한 1번이어서 실수도 많이 있었어요. 사회
자가 수습자 발표할 때 저희 이름을 불러서
잘못 이해했어"라고 웃으며, 생각도 못했는데 발
제에서 더 기쁘게"라고 답했다. "실력은 크게 위
아지지 않았는데 우리 노래가 있다는 게 자랑삼
려요"라고 말하는 그는 공연이 자신의 음악
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노래 제목처럼 아직은 흐릿한 육등성
발명지도 모르나, 언젠가 환하게 빛나는 일등
성 별로 발명될 그를 기대해본다.

조혜원 기자
mutate84@hanmail.net

오는 13일(월) 서양어대 정기총회 열려

서울배움터 서양어대 정기총회가 오는 13일
(월) 오후 5시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
번 정기총회에서는 △서양어대 학생대표자
의 결과 △서양어대 재정감사 결과 △재단
부정 경과 등을 보고하며 △이리크 파병 반대
△재단 공영화 부정 등을 결의한다. 이번 정
기총회는 외대 노태도 창립단 '창년'과 포르투
갈이 노래대 '깃발', 새내기 율동부 등의 공
연이 있을 예정이다. 서양어대 정기총회를 담
당하는 소하원(서양·노어과 01)은 "상반기
를 정리하고 남은 하반기까지 열심히 활동하
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많은 서양어대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노동조합, 지난 9일 각종 위원회 소집

지난 9일(목), 노동조합은 오후 3시 호봉회
도 개선 소위원회와 오후 5시 비정규직 정규
직화 소위원회를 서울배움터 본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었다. 호봉제도 개선 소위원회
는 호봉제도에 따른 직종·경력차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직종, 학
력, 경력 등 차별현상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
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위
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주제토론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본관 108-2호에서
행정능률화실행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는

대학당국 각 부서 담당자와 노동조합 위원
이 참석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시키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건의
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 몇몇 부
서에서 시달리던 민원 처리에 대한 평가와 항
후 행정능률화 방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논의
했다.

노동조합 사무부처 전문에서는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원회화를 진행하며 행정전문
성과 서비스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용인, 오는 16일(목) 홍세화씨 강연

오는 16일(목), 용인배움터 도서관 3층 배
나실에서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란 주제
로 홍세화 한겨레기초위원의 강연이 있을 예
정이다.

왕산 사회과학 학회도인인 '사파마'에서
주최하는 이번 강연은 사회적인 이슈들과 관

련해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외대인
의 지식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파마
에서는 이미 지난 7월, 8월(목)에 신학원
전국연호노동조합 위원장과 최규영 민주노동
당 지주동일위원장의 초청강연을 가졌다.

경영학과장배 모의주식투자대회 13일(월)부터

오는 13일(월)부터 31일(금) 3주간에 걸쳐
경영정보학과장배 모의주식투자대회가 개최
된다.

용인배움터 금융경제학회인 가운누리가 주
관하고 외대 재학생 모두를 참가대상으로 하
는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학생중 1등부터 3등
까지 우수학생을 뽑게된다.
1등학생에게는 상장 및 상금 30만원과 동원

증권사 입사서 가산점 부여와 2등에게는 상금
10만원, 3등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http://cafe.daum.net/gounuri>로 접속하거나 경상에 410호 방
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할 수 있다.

1등은 30인 이내로 선택해야 하며, 대회기간
중 총 5회이상 매일, 매도해야 하는 등의 대
회규정이 정해져 있다.

지난 8일(수) 열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가 지난 8
일(수) 서울배움터 대학원 지하 1층 2호 강의
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동아리연합회 공헌보좌관 송도보람(동양·일
본어 00)은 보고안건으로 동아리방 이점론
제와 재단 공영화를 소개하면서 동아리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경고 누적으로 제명위기에 놓인 사회과학부
과 동아리 프래머테우스에 대한 논의 결과,
제명은 부결되었고 1년동안 지원비를 지급 받

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또한, 코인즈
(COINS)가 학술부와 동아리로서 인정되었고
부회장 후보자였던 정희정 후보자의 단독출
마가 가능하도록 동원 더욱 회의가 개정됐다.

이에 대해 송도보람군은 "프래머테우스는
재명이 부결된 만큼 더욱 동아리 운영에 힘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동아리들도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
라"고 말했다.

서울 신방과 학술제 오는 13일(월)부터

서울배움터 신문방송학과 학술제가 오는 13
일(월)부터 17일(금) 오후 6시에 열린다.
13일(월) 문화원구학회를 시작으로 14일
(화)은 한국 사회문화 연구단, 16일(목)은 광
교학회, 17일(금)은 노래대 새날의 공연이 대
학원 소강당에서, 17일(금) 방송학회의 학술
제는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김국현(01)군은 "신
방과 학술제는 전래 7개 중 6개 학회가 참석
한다"며 "학술제가 단순한 지식 육구를 충족
시켜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
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평등으로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지난 8일(수) 상·법전 열려

지난 8일(수) 서울배움터 상경대학교와 법과
대학 1학년들의 정기 체육대회인 삼합전이 열
렸다.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 함께 사용하
는 상경·법과대학 1학년들의 화합을 도모하
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서로간의 우정을
다지는 취지로 기획된 이 체육대회는 약 20
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체육대회를 치러, 이
건 단과대학의 이름을 먼저 붙이는 이 체육대
회는 올해에 경우 상경대학교 법과대학을 이
겨 '삼합전'이라 명명됐다. 이날 오전 10시부
터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 축구, 발구기, 농구,
리틀리게추경기에는 상경대학이, 파구는 법과대
학이 이겨 총 전적 4:1로 상경대학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행사 기획을 맡은 법대 1학년 학
생대표 권순욱(00)군은 "오랜 기간 이어져 지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행사인 기회를 많이 배
려나, 사회과학관을 쓰는 상경대학생들과 법과
대학생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획을 맡은 상경
대 상경계열 의장 박순근(00)군은 "서로 라이
벌이자 동반자로서 이번 대회도 계속 발전적 방
향으로 경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파이더맨

지난 7일(화) 용인배움터 노년극장에서 있었던 동아리 '인악
부'의 갈매기공연
박지혜 기자

FBS 외대 가요제, 지난 9일(목) 열려

지난 9일(목) 서울배움터 노년극장에서 FBS
외대교양방송국 주최로 FBS 외대가요제가
'즐거움 난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수도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
회에서는 10개팀이 참가하여 자신의 창작곡을
불렀다. 최우수상은 '가슴'을 부른 동덕여
대 임진호(실용음악과 03)이며, 우수상은
'Breathing'을 부른 연남대학교 MAYDAY 가.
낭장은 '육등성멜로디'를 부른 우리학교 함

가팀 '워키토기'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 양은 "경기도 못했는
데 상을 받게 해서 너무 좋다. 나보다 더 잘
한 참가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수상하게 해서
죄송스럽다"고 우수상을 말하면서 앞으로
FBS 외대가요제가 발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은 상금 80만원, 우수상은 상금
30만원, 낭장은 상금 20만원이 주어지고 수
상자 모두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용인 공대 과방꾸미기, 디점과 1등 차지

지난 9일(목) 용인배움터 공과대학에서 있
었던 '과방꾸미기'에서 '디지털정보공학과'가
1등을 차지했다. 이번 '과방꾸미기'는 각 과
방의 청결도, 활용도, 인테리어, 이용도 부문
4개를 심사기준으로 상이 공과대학, 각 과
학과장, 공대 학생회장이 심사했다. 이번 심
사위원을 맡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윤태호(정
보산업공·정보통신공학 96)은 "1, 2학년

학생들이 과 활동 참여도와 금강산 모조지
터에 본래를 위해 이번 행사를 주최했다"며
"디지털정보공학과 과방이 도목부분과 행사
인원들이 특히 잘 되어 깨끗한 느낌을 주
었고"고 전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정보공학과
학생회장 강성기(96)군은 "교수님의 적극
적인 지원과 과학생들이 하나가 된 것이 1
등을 하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리크

『외대화보』83호 1면기사 '용인총학, '재단공영화 지지·파병반대' 기사에서 배우수
'외화'를 '수화'로 보로 잡습니다.
『외대화보』83호 주제기획의 '도디시' 분류가 시작되는 덕성여대 기사의 관련지은 지
년 2001년 때의 것으로 현재 덕성여대는 편린이사기 선포문 분류는 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83호 기사로 피해를 입은 덕성여대 관계자 여러분께 사죄드
립니다.

외대화보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요일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연
월 (13일)	오정아(백범) (W1,000)	소고기(비행) (W1,500)	삼촌(고기) (W1,500)	함정(김치) (W1,500)	케이(로리) (W1,600)	비대(박광수) (W1,200)
화 (14일)	내(내) (W1,400)	오정(비행) (W1,500)	함(비행) (W2,000)	육(육) (W1,500)	김(비행) (W1,400)	박(박) (W1,200)
수 (15일)	소고기(비행) (W1,500)	함(비행) (W1,500)	재(김치) (W1,500)	김(김) (W1,500)	케이(로리) (W1,600)	재(박) (W1,200)
목 (16일)	대(비행) (W1,400)	불고(김) (W1,500)	치(김) (W1,600)	오(비행) (W1,400)	소고기(비행) (W1,500)	우(우) (W1,000)
금 (17일)	생선(조만) (W1,000)	산(비행) (W1,400)	함(비행) (W1,500)	순두부(비행) (W1,300)	함(비행) (W1,500)	평(평) (W1,000)

용인배움터

구분	어 문 관			후 복 관		
요일	한식	양식	분식	일품	분식	양식
월 (13일)	육개장 (W1,800)	치킨(케스) (W2,000)	리면 (W1,200)	야채(음) (W1,300)	간식(국) (W1,300)	함(박스) (W2,000)
화 (14일)	함(김치) (W1,500)	치즈(비행) (W2,000)	우동 (W1,300)	야채(음) (W1,800)	간식(국) (W1,300)	오(로리) (W2,000)
수 (15일)	산(비행) (W1,500)	산(비행) (W2,000)	자(김) (W1,300)	육(비행) (W1,800)	라(비행) (W1,300)	라(비행) (W2,000)
목 (16일)	산(비행) (W1,800)	치즈(비행) (W2,000)	떡볶이 (W1,300)	나(비행) (W1,800)	함(국) (W1,300)	스(비행) (W2,000)
금 (17일)	육(비행) (W1,800)	세우(케스) (W2,000)	아(국) (W1,300)	치즈(음) (W1,800)	재(김) (W1,300)	돈(케스) (W2,000)

2003년 2학기 서울캠퍼스 FBS 외대교양방송국 방송 편성표

	아침방송 (06:20~06:50)	점심방송1 (12:05~12:25)	점심방송2 (12:25~12:50)
월		월별 두 번 방문	맛있는 재밌이
화	아침의 신해	로고 인 스포츠	호른의 선율위에
수	8	FBS 드라마	이웃들 기행 (12:40~12:45)
목	캠퍼스 네트워크	FBS 뉴스	바라본 고운일 (12:35~12:45)
금		영화의 인생이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2003년 2학기 용인캠퍼스 FBS 외대교양방송국 방송 편성표

	아침방송 (09:00~09:40)	점심방송 (12:10~12:30)	오후방송 (15:40~16:05)
월		팝스앨범	음악방송
화	미소를 쓰는 사람들	뉴스	시(비행) (W1,500)
수	아침의 신해	뉴스	음악방송
목	영어가 흐르는 카페	뉴스	시(비행) (W1,500)
금	지구촌 음악여행	음악방송	

기자동행취재기 - 서울배운대 가을농활 현장을 찾아

농활의 현장이 즐거워라!

갔노라, 했노라, 느꼈노라... 외대인의 우리 농업 사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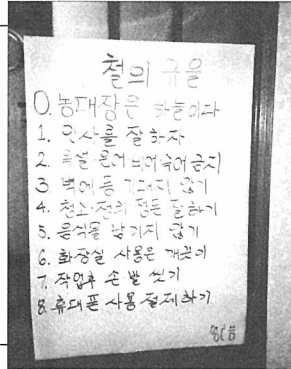
“농활은 왜 가? 돈 내고 왜 내 몸 합들게 해?” 농활을 가기로 하면 늘 듣는 말이다. 하지만 농활은 가본 이들에게만 안다고 항상 결론짓는다. 농활은 ‘농민·학생 연대활동’의 줄임말이다. 학기 초 새내기 시절, 무작정 산배를 따라 불 농활을 가서 농활의 의미와 일하면서 느낀 감정을 처음 느끼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농활까지 오게 되지않았나 생각한다. 불 농활에 직접 뿌린 씨앗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이번 농활을 가기 위해 내는 농활 관련 기사를 쓰겠다는 조건으로 837호 기사를 무려 이틀만에 완성하고 다투게 농활대에 합류했다.

전라북도 김제시 민강읍 소트마을. 내가 불 농활 때부터 들어있던 동네다. 지난 5월, 허허벌판이었던 마을회관 앞 들안에 모두 황금빛 벼이삭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몸으로 느끼다
3일 아침, 본격적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인사대자보로 농활대가 온 것을 알리고 농에 가서 어머니, 아버님에 직접 인사도 드렸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일 한바퀴 돌며 해바라기 하는 마음으로 작업복을 입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을 중에 가장 한가한 시기인 가을이었던 것이다. 10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추수를 해서 지금은 쉬는 기간이라고 들었다. 총학생회측에서 농활 준비를 할 때 미리 좀 더 알아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겼다.

그래도 할 일은 항상 마친, 몇몇 농가에

농활에서 꼭(?) 지켜야 할 철의 규율. 농대원들의 감시는 규율반정의 첩이다.



바뀌를 들고 어르신께 아침 인사를 드리고 다시 작업 모드로 돌입했다. 이제 밀집모지와 참화 심은 모습이 재빨리 익숙하다. 다시 낫을 들고 논으로 갔다. 벼를 베는 것도 일이지만 눈을 돌려 한 톨을 베는게 오늘 작업이다. 빈 곳 없이 심어진 풀을 보며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한 번 느낀다.

내년 봄에 볼것입니다!

향상 농활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농대원이 축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돌아온다. 그리고 그 후 몇 일간은 농활 후유증을 먹을 것을 대할 때의 태도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금방 그 생각이 잊혀지더라도 한 번 더 농민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농활의 의미는 충분히 아닐까?

“농활은 중독이야!”라고 나에게 한 선배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스스로가 중독되어 감을 느낀다. 내년이 되면 또 한 번 농활을 가리라.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잠들어 있었다. 하얗던 피부가 가을 햇빛에 타 거무스레해지던 어떤 또한 농활의 수확이라 하겠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농민가가 내 귀전을 울린다. 농활,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정령 배움의 장이다.

김경진 기자 shini18@hanmail.net



소트마을의 유일한 고마소녀, 농대원에게 보냈다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사설

이스라엘의 시리아공격과 중동평화

이스라엘은 지난 5일 시리아 영토 아인 사비브를 공습함으로써 중동평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를 또 다시 격분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하마의 식당에서 팔레스타인 자살 폭탄 테러로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의 보복 목표가 팔레스타인이 아닌 시리아였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본토를 폭격한 것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테러조직에게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훈련시켜왔기 때문에 방어적 대응이며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시리아영토 침공은 주권침해이며 국제법위반행위로 비난하고 있다. 다만 미국만이 시리아가 팔레스타인과 계속 연관을 맺어왔다고 비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주권공은 팔레스타인 여성 반화민으로 하마의 자살테러와 연관이 있다. 이스라엘공격으로 사망한 오빠의 복수를 목적으로 자살 폭탄테러를 자행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팔레스타인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현적인 보복의 악순환인 것이다. 올해에만 팔레스타인내 자살폭탄 테러로 인하여 7월에 걸쳐 112명의 사상자와 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더욱 큰 문제는 팔레스타인 자살 폭탄테러가 점차 대규모화하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공격도 이번 시리아 국경침범에서처럼 무차별적이고 국가 폭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6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함께 중동평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은 2년 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청설을 통하여 항구적 중동평화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일방적 이라크공격과 정면에서 대항 국제사회의 비난과 이라크에 내 강한 반입정서를 감안한 부시행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연속되는 폭탄테러와 이스라엘의 강경 입장의 악순환 등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답보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시리아영토 공격이 발생하였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시리아영토공격에 대한 시리아와 이라크국가는 아랍연맹과 유엔 등을 통한 외교적 비난의 어떠한 군사대응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군사안국 이라크는 미군의 정찰망에 있고, 이집트 무바라크정권은 비교적 친미정권이라는 점도 그 이유이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중동평화 로드맵이 물 건너 갔다는 것과 미국의 이라크 정면 행동으로 아랍연맹이 좌절과 정란, 그리고 분노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아랍인들은 아랍민족주의가 벽에 부딪치거나, 혹은 이스라엘과 정면에서 패배했을 경우,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무력한 정무를 행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외세에 폭력적 저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지금 이라크에게는 거대한 용암이 분출을 찾는 비로 폭발적일 상함으로 보여진다.



저자: 신이...

2004학년도
모집요강

21세기 유망직종 특색 반영의 요망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정확한 수확률
75%

8개연도 정기간 해외연수 혜택
국내 최고의 교수진

1. 모집학과
2. 전형일정
3. 특성
4. 지원자격
5. 지원서류
6. 전형방법
7. 학비
8. 기타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학년도 전기 일반전형

세계경영대학원(이전)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2.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3. 학비
4. 지원자격
5. 지원서류
6. 전형방법
7. 학비
8. 기타

한국의국어대학교

2004학년도 전기

정책과학대학원(이전)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2.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3. 학비
4. 지원자격
5. 지원서류
6. 전형방법
7. 학비
8. 기타

한국의국어대학교

2004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이전) 학생모집

1. 모집과정
2.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3. 학비
4. 지원자격
5. 지원서류
6. 전형방법
7. 학비
8. 기타

한국의국어대학교

4. 주 제 기 회

학생들 반응

대학평가, 흡산은 할말이 많다!

학생들 대부분 평가방법에 불신 나타내
서열화 조장한다는 여론도 있어

지난 9월 24일 발표된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이날 발표된 대학평가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종합 21위를 차지했다. 물론 평판이나 외국어 능력, 사회적 기여도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종합순위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예상에 비해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외대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illegible]

오프라인 학생들도 '믿을수 없다'
 "서열화를 부추기는 결과다. 사실상 특수분야
 평가가 각아되지 않고 가야말로 중학교 때 전

과목 1등 하는 학생이 모두 것을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는가. 결국 서울대가 무슨 분야든 최고라는 것을 더 확고히

학교의 특성화 된 부분도
감안해야
안그러면 서열화 부추길 뿐

하는 의미 이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박원(기초·신앙문화) 이근의 말이다. 함께 일한 임정환(기초·신앙문화) 이근도 “평가 자체의 세부적이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아쉬웠다며” “특수 대학의 특성과 패별 평가 또는 대학의 특성에 대해 평가가 따르지 않았다”며 이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라는 날치 물음의 뜻에 대해서 박원군은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지만, 이이 “단순히 순위 매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앞서 말했듯 대학의 특성이 드러나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밝혔다. 세대의 갭은 이러한 기차, 신재현(문화·예술) 00군은

“순위가 굉장히 낮아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대학의 서열화 자체는 이미 존재하고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그 서열화나 학벌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확고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정은(서유럽·영여 03)양은 “일단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평가에 대해 대학당국이 자각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 달랐다”고 말했다.

[illegible]

	그날 밤엔 창고에서 잠을 잤다. 누가 자다가 갑자기 깨워도 부채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내가 처음에 믿어보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책을 읽을때는 자도 잠도 깨고도 자고만, 잠을 자다가도 졸음이 쏟아져서 졸고,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그리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13:04:25
	[한글] 1971 [영어] 1971 [일본어] 1971 [독일어] 1971 [프랑스어] 1971 [러시아어] 1971 [스페인어] 1971 [이탈리아어] 1971 [포르투갈어] 1971 [그리스어] 1971 [터키어] 1971 [아랍어] 1971 [히브리어] 1971 [유대어] 1971 [페르시아어] 1971	2008-08-03

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학교의 발전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평가지체의 취지는 좋은것 아니냐"며 "신문을 보는 대중이 평가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대학평가에 대해 신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외대생들 사이에 퍼져있었다. 학교

측 교직원들도 물론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평가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하는 등 중앙일보의 평가방법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대학평가에 **홍**산들은 할말이 많았던 것이다.

박승열 기자 park984@hanmail.net

중앙일보 대학평가, 진정한 대학평가 가능한가?

평판도와 재정부문 평가, 덩치 큰 대학에게만 유리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평가기준 문제삼아 거부 움직임 보여

지난달 2월(수) 중앙정보부는 2003 대학평가 결과표를 발표했다. 올부터 10년째인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취지에 대해 조국총장은 축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평가부문을 크게 교육여건·재정(200점), 교수연구(180점), 평판도(80점), 개선포럼(40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눈다. 여기서 평판도는 △졸업생부문(인성·출신·취업·국제) 외국어 구사능력, 발전지향성, 봉사·공익·기타역량 3개 항목으로 구성

도, 사회기여도, 기부금, 최근 발전도'로 나눠 평가한다. 최근 평판도라는 것은 객관적 지표자료를 아예 배제하고 기성회장과 처·실장급 3명 중 12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는 "비수나 학생들의 수준을 세간의 소문이 주관적 편견을 통해 그 정도를 서열화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상급권 학교나 유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평판도도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랐다"고 말했다.

교육연구·대중 문화의 경우 20개의 평가항목을 갖고 있다. 대형 종합교의 경우 한 학과에서 한

생당 교육비, 국고보조금, 재단 전입금 비율, 기부금 합계 등의 지표는 사회평등재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위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의 세입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로 평균에 미치는 영향에서 4년 이상으로 평가가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이 되는 의문도 제기됐다. 학생당 교육비(연구 포함)가 44,828 원인 일반인 한국대학 기술인(22.745 원)을 비교해 대학이 전문대학과 설립이 얼마 되지않는 신생 대학이 중앙인하의 기준에도 정형한 1년 단원회 재정이 든든한 대학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이 단순히 학교의 숫자
적인 재산증거에 따르기 때문에 학교가 재산
관리를 무관하게 하는지, 학생들을 위한 투자
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은 좋은 결과를 위한 위
해 직접가는 부재만 단기로라도 투자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
학의 질보이는 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대
학들은 양적으로 여의원에 의지해 쏟아 붓고 있
다. 또한 등록금을 인상시켜 이월·적립금이나
건물 신·증축에만 대거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평가의 경우 전국대학기획실(장)지침의
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던 하계세미나
에서 "중요일보가 실시하는 평가사업에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며 평가
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모았고 70여 개 대학
이 계열평가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모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대 관계자는 "평판도 등 일부
문항이 명문대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들러리 신세라면 평가에 응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킨 것"이라 말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팀 관계자는 "10년 동안 대학평가를 해오면서 많은 반대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발전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수평자에게 대학정부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달성했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간일보 대학평가에 참여한 지방대들의 한 관계자는 “우선 대학평가에 대해선 언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누가 어떤 공과가 때문에 인정하는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립대, 사립대 구분과 대학원·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해 평가한다는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 전했다.

이와 관련, 중앙연구원소 관계자는 “중간일보보육이 정점으로 대학평가의 의의가 있다”고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대학평가를 중단하고 대회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언론의 수렴적·근거논의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정 기자 dhase272@hannail.net



파병...
하시렵니까?

얼마전 실시한 전국 대학생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서'가 67.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 놀음에 진짜로 '한 몫' 하시겠습니까?

파병·전쟁반대, 이제 전 세계인의 바람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중앙일보 대학평가, 대학발전 도모했나

교육여건 퇴보, 홍보비는 전진

장학금·도서구입비는 감소, 대외홍보비는 61% 증가

올해도 어김없이 중앙일보의 대학평가가 발표됐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철저히 대학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어 결과가 나올 때마다 대학가의 논란거리가 된다. 중앙일보에서는 대학을 평가하는 목적을 '대학간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학교는 발전적으로 변화했는지 의문을 던져볼 일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과연 학교발전을 도모했을까?

우자회와 진보교회의 2019년 장제학예회를 살펴 보면, 우리교회의 장제수는 2003년 18.65명에서 2020년 20.00년 15.04명에서 비해 3.00명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대학교회의 2001년에서는 오히려 장제교회의 수를 등 전체를 감소한 것이다. 2003년 현재 장제교회의는 학생수 증가에 비해 장제비율에 부합하지 않으나 3명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시간강사는 882명에서 1,104명으로 222명이 증가했다. 결국 3년 동안 우리 학교의 시간강사와 1인당 학생수는 37명에서 41.3명으로 1인당 학생수가 4.3명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대대적이 학생수 증가한 만큼 장제교회를 고려하는 데만 해도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시간강사를 고용한 결과이다. 훨씬 더 많은 장제수 수혜를 얻어온 것으로 보았을 때 2003년과 2020년 장제수의 전체 비율의 9.9%를 차지한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체 세대의 9.8%로 오히려 줄었다. 도서 교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0년 전체세대의 1.6%였던 도서 구교회는 2020년 1.2%로 오히려 0.2% 감소했다. 하지만 이보다 장제교회를 고려할 때 1인당 학생수 감소한 반면, 홍보비는 60%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관련 경비를 신장수로 제정 1년 여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학교발전 도모를 위한 노력보다는 단기적인 홍보 평가를 노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교육여건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퇴보 한 까닭은 열악한 수입구조가 개선

되지 않은 까닭이다.
대학당국이 제시하는
재정현황을 보면 2000
년에 비해 등록금 의존
율이 확실히 낮아졌다.
그러나 대학당국 수입
원을 분석해보면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건설비



명으로 단지 3.4명이 줄었을 뿐이다. 반면, 직원 1인당 학생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91년 직원 1인당 학생수 25.5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53.5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역시 91년 55권에서 2001년 49권으로 줄어들었다. 단, 학생 1인당 도서관 입비가 90년 4만 4천원에서 2000년 8만 6천원으로 4만 2천원 증가했을 따름이다. 결국 지난 10년간 전체 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라는 언론이 가지는 힘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다. 그 영향력은 오히려 진정한 대학발전을 가로막았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앞으로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진단이 필요한 부분인 대학운영의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을 따져볼 수 있는 넓은 안목으로 진행된다면 진정한 대학발전을 도모하는 가치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김응훈 기자 oedae01@hanmail.net



금강산평화사업과 남북경제협상을 위한 100만 대학생 참여 캠페인

금강산, 개성 평화민족동산

100만 대학생

평화의 숲

만들기

“시작은 대학생이, 참여는 국민이 함께!”

평화민족동산 대학생 평화의 숲 조성 및 주식 짓기 사업요청에 참여하는 100만 대학생들은 금강산의 개성에 조성될 ‘평화민족동산’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실수를 직접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질 예정이다. 그 이름과 깊이 같이 남기지게 될 것입니다.

2003.09.23
~2003.11.15

평화민족동산 대학생 평화의 숲 조성사업
주최: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사무소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사무소, 유네스코한국사무소

본 캠페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한국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기고 -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왜 대학평가를 중단해야 하나



공개됨에 따라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 기부금 유치, 대학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일보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었을 까. 이를 판단하자면, 중앙일보가 '경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미국 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를 벤치마킹하여 대학평가를 실시해온 지난 10년간의 우리 대학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몇몇 대학의 순위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학연구원은 IMF 경제개혁기후를 내세워 중점연구인 교육과 연구에 대
한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가. 교육과 경제개혁에 따른 진정성 있는 인력 생산을
는 90년 34.9%에서 2002년 37.0%으로 하향해 보았으며, 직원 인력 생산은 25.5%에서 2000
년 53.3%으로 크게 증진하고 있다. 학생 인력 교육 역시 91년 45.5%에서 2001년 49.0%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그만큼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미비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운영수입
대비 재단연구금 비율은 IMF 이전인 90년 6.9%에서 2002년 5.6%로 떨어졌으며, 교육보조금
비율도 90년 1.4%에서 2002년 3.9%로 늘었다. 이 대학과 차지하지 않은 인력 생산 3.9%와

진정 대학 개혁의지가 있다면 대학 서열화 조장하는 대학평가를 중단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에 충실해야

는 평균에 미달되는 대역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일보의 대학평가가 위약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여 외형성향 등을 통해 대학간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기준을 보면, 크게 **표준화된 및 체계 교수연구** **스펙트럼** **노출도**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역량 및 지적 환경에 포함하고 있는 학생당 교과비, 교과교보비, 전임교 비율 등을 단순화하는 안정적인 교수연구, 건설형 재정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이유가 큰 대학에 전적으로 유리하다. 교수연구의 오비중지 및 과외제수, 여여에 대한 불합리한 미비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중앙일보보에 획일적인 양식평가의 문제를 보완하였는데, 경쟁평가로 '원본'과 '개선판'을 참가자에게서 역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제출한다. 원판들은 정무박사, 지자계, 호도, 금윤득 등의 신진 담판자 및 일각들의 전문지식을 통한 개선판을, 이에 개선판도, 개도, 호도 등을 측정한 평가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판도 역시 세칭 일괄제에 유입되는 것은 삼척도도라는 사실이다. 개도 역시 대변 부부만 부분의 면적을 재확인한 결과지라고는 생각 않는다. 때문에 이들 각종지표에서 밀려났듯이 뻔한 대안부의 대략들은 평가자 혼비, 행시, 시를, 간을 신, 증등등 의외정의를 통해 비슷한 규모의 타대형의 사설경쟁에 매달려서 이들 것을 오늘날 신구 대략의 종용이다.

결국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사측이 10년 넘게 대학평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본래 내세운 취지 이외에 다른 속셈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언론비평전문인(미디어오늘)이 밝힌 바와같이 언론시간에 대속소 및 평가기사를 통한 대결구도, 판매부수 늘리기 경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중앙일보에서 진행된 대학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대학설립화를 조직하는 대학결과는 중
단하고 사회의 부정, 비리결정, 교육정책확립비안 모색을 대학의 근간적 문제해결과 이를
위한 연구수출의 급진적 변화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것이다. 대학수입자를 또한 더 이상 학교가
주도의 개인주의에 매몰된채 평가결과에 부합되도록하여 대학설립화를 스스로 목감인 오류
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학의 주요인으로서 책임의식과 태대적 애국심을 구현할 줄 알아야
하며, 그에대한 진정한 책임수출을 외할 수 있다.



양심없는 외대인의 흔적입니다!

이곳은 모두가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누구 하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14000 외대학우의 이름으로
매일 책 치우기를 하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현장취재 - '이라크 파병 지지 10·10 공동행동의 날'

500명 대학생, "파병은 미친 짓이다!"



"500명의 대학생이 한 목소리로 반전평화를 외치는 이 공작이 제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요." 지난 10일(금) 오후 3시,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 저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이라크 파병 지지 10·10 대학생 행동의 날에 참가한 인공성(서울교대 90) 군의 말이다.

오늘 행사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대학생 500여명이 참가, 대학별로 특색 있는 선전물을 준비해 파병저지 열기를 더욱 높였다.

서울교대 이은철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약 1시간의 질의 발언과 2시간의 거리행진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인류 역사상 미국의 이라크 전쟁만큼 더러운 침략은 없었다. 이런 명분없는 전쟁에 정부를 보내려 하고 있다. 이번 파병으로 실사 정책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할 얻은 이익이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없고 민족주의 명에 가려진다. 따라서 정부에 파병 저지와 비전투

병 철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결의했다. 이어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김동환군은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국익, 동맹관계 운운하는데 그것은 다 미국에 붙어 있는 가진 자들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라며 동맹 국익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씨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은 "이라크 현지 조사단 역시 이라크가 안전하다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파병에 찬장한 나라'라는 말이 꼭 맞다. 절대 파병할 수 없다. 파병반대 움직임의 주체가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의 결의를 다진 후, 대학생들은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로3가 탑골공원을 거쳐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은 "전쟁반대, 파병반대" 등의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언장을 배포하며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을 알리던 강연자(한신대 90)장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친구, 오빠, 동생들이 말리 이라크에 가서 자기 도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집회에 나왔을 때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으면 절로 신이 난다. 추후에 있을 투쟁현장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을 지켜본 시민들도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 먼 노무진 대통령부터 가려! 왜 일정한 젊은이들이 파병을 해야 하나!"며 대학생들의 여운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거리행진에서는 전쟁물의 과잉 전양으로 학생들의 부상이 잇따랐다. 특히 '근조, 한미공조'라고 쓰여있는 미국 대포 모형의 상징물을 붙여두는 화형식을 진행하는 도중 이를 지지하려는 전쟁물로 인해 행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거리 행진의 최종 도착지인 탑골공원에 도착하여 강연자들은 하려던 학생들을 자리를 계속 좁혀오던 경찰과 대치, 다시 한번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 이로 인해 명지대학교 학생과 고려대학교 학생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학생들은 "폭력 경찰 각성하라!", "평화 시위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경찰들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오후 6시가 다 되어서 어떻게 시작된 정리회는 순무한(서울대 법대4)군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리회에서는 먼저 군 2달간 진행했던 스트라이크 투쟁 경과를 보고한 후 스트라이크 투쟁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가 오늘 전원 출소한 통일선봉대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통일선봉대 소속 강남목(고려대학교 02)군은 "우리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로 돌아가 '전쟁반대'를 외쳤을 뿐이다. 이번 일로 맞아 합류되었던 우리의 투쟁의지를 꺾지는 않았 것이다. 대학생들 모두 조금 더 힘을 내자. 반드시 파병을 막아내야 한다"며 그를 맞아준 학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대학생 총결기 준비과정을 보고하고 파병 반대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경희대 한의대 학생회장 이서윤장은 "일부 언론들이 대학생의 70% 이상이 파병을 찬성한다며 오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경희대에서 가졌던 파병찬반 총 투표 결과, 또한 전국 대학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병반투투 결과 이거 거짓이었다고 드러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이를 규탄했다. 또한 이장은 "우리 대학생들은 학우와 민중, 평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 패기라는 큰 무기가 있다. 미제국 주의를 쓰러뜨리기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이라크 전쟁, 침략전쟁, 이라크 파병, 중단하라!의 구호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짐으로써 행사의 끝을 맺었다.

김진지 기자 oedapress03@hanmail.net

단독 인터뷰 -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

한총련 탄압, 이라크 파병반대 목소리 잠재우기?



파병 찬반투표가 진행될 지난 9일(목) 경희대에서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

"이번 한총련 탄압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5·18 투쟁, 스트라이크부터 투쟁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파병반대'라는 대세를 꺾기위한 공안당국의 탄압으로 생각된다." 이는 지난 9일(목) 경희대학교에서 만난 11기 한총련 우대식 대변인의 말이다. 그는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해 "11기 한총련은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 논란이 있는 이 시점에 이적규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장기적인 고관인 한총련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철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이적규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우대식 대변인은 "11기 한총련 대의원들의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규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보다 먼저 실제로

우대식 대변인은 "한총련 이적규정 이후 파병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며 "법률이 남도록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학우들을 만나는 활동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대식 대변인은 "탄압으로 인한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10일 파병반대 대학생총결기, 11일 범국민 대집회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규탄 집회와 오는 11월 3일 학생의 날에 다양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훈 기자 oedae01@hanmail.net

학내 길거리 특강 - '이라크 파병반대, 반전강연회'

"이라크 민중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9일(목) 오후 1시, 도서관 앞에서 '이라크 반전 평화행진'이 펼쳐지는 이라크 파병과 학살, 끝까지 않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라크 파병반대, 반전강연회가 열렸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이라크에 긴급 의료지원활동을 진행한 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변희진(보건단대학의료연합 의료 지원팀 기획부서)씨에게 이라크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들었다.

지나간 대학생들은 "이라크는 지금 파괴된 사실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강연자의 말에 장난치기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였다.

다. 처음부터 강연회를 지켜본 김재연(서양·노인09)은 이라크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지 몰랐으며 "강연자께서 노무진 장군의 이라크 파병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시원하게 얘기해주셨던 것 같다. 이를 다른 학우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쟁 전에 우리는 자유는 없었다지만 지금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는 있지만 직장도, 사랑도, 물도, 안전도 없다"는 이라크 현지인의 말을 전하는 강연자의 말에 이라크의 처참함이 그대로 배어났다. 강연 도중 "국익이란 이유로 국가에서 말할 때는 유심히 들어야해요.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강요해야 할 때 꼭 그런 말을 쓰죠"라는 강연자의 말에 학생들이 한바탕 웃기도 했다. 강연은 "지금 이라크에서 가장 열려있는 것은 평화운동이다. 발칸반도와 걸프만에 사용된 열화우라늄으로 유럽과 미국 병사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파병 후 어떠한 질병으로 죽어갈지 공포감을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낼지 않겠고 파병 반대를 결의하는 말로 막을 내렸다.

한편, 강연자 한연씨는 '반전위원회'가 발인 파병반대 서명운동에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발급 서명을 하고 돌아서던 오서연(서양·독일언어 00)장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퍼져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번 이라크전쟁은 너무나 정당한 전쟁도 아닌데 파병까지 한다"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부담감을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서명을 발인 조영훈(서양·영문00)군은 "파병을 통해 이라크로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 형제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는 전쟁에 우리 친구, 형제들이 죽을 수 없지 않느냐"고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강연을 마치고 나온 변희진씨는 '파병 반대

를 주장하는 여론의 성과는 대단하다. 정부에서 실제 이라크 상황을 들여보내주면 우리 이라크 반전 평화행진만 아니라도 할 정도다. 지금 청년들이 알아야 할 정도다. 미제정부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려면 청년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며 대학생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김진지 기자 oedapress03@hanmail.net



지난 9일(목) 열린 반전강연회 강연자, 변희진씨 모습

학칙개정(안) 공지

학칙 제80조(학칙의 개정) 및 제90조(입학전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고(안)를 공지합니다.

- 1. 개정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모든 졸업생들을 영어와 정보통신 능력의 기본 소양과 사회생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고, 이를 위한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학칙에 명시한다.
- 2. 학칙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80조 (졸업인증제(졸업인증제)) (1) 3학년 1학기부터 (2) 졸업인증제 (3) 졸업인증제 (4) 졸업인증제 (5) 가 학과에서 (6) 졸업인증제 (7) 졸업인증제	제80조 (졸업인증제(졸업인증제)) (1) 3학년 1학기부터 (2) 졸업인증제 (3) 졸업인증제 (4) 졸업인증제 (5) 가 학과에서 (6) 졸업인증제 (7) 졸업인증제 (8) 졸업인증제	추가 신설
- 3. 의견수렴**
위의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03. 10. 23(목) 17:00
▶ 제출처: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수업운영
▶ 제출방법: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소속,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0.
교무처장

2003학년도 제2학기 중간시험 일정

2003학년도 제2학기 중간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아 래-

- 1. 시험기간**
2003. 10. 20(월) ~ 10. 24(금)
- 2. 평가방법**
가.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담당교수 재량으로 실시함.
나.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를 부과, 수업 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평가함.

2003. 10.
교무처

200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희망과목 설문조사

2003학년도 동계방학에 개설할 교양과목을 선정하기 위한 계절학기 수강희망과목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설문조사에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1. 조사기간:** 2003. 10. 13(월) ~ 10. 24(금) ... 10일간
- 2. 조사명:** 동계 계절학기 수강희망과목 설문조사
- 3. 조사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

2003. 10.
서울·용인 교양과정위원회

2003 기업계 인사조직원 모의연접

최근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기업경영의 핵심인 우수 인재 채용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인건비, 사내채용, 소규모채용 형태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점적인 인사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평가제도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캠퍼스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기업계 인사조직원 모의연접을 통해 면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2003 실전 모의연접" 행사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아 래-

- 1. 일시:** 2003. 10. 30(목) 15:30 ~ 17:30
- 2. 장소:** 복합인쇄국강
- 3. 참가기업 및 면접관**
가. 삼성전자, 제1회 취업
나. 현대자동차, 동원기업
다. 한국도로공사, 이이자동차
라. 대우건설, 정세진 사장
- 4. 면접위원 및 피 면접자 수**
가. 기업 면접: 3명
나. 기업 면접: 5명
다. 프리젠테이션 면접: 2명
- 5. 문의**
용인캠퍼스 학생취업정보센터 ☎ 031-330-4040 / 4041

2003. 10.
학생취업정보센터

외대학보 837호 비평

학내문제 날카롭게 보도하는 학보돼야



한 통의 감사메일이 사회부 차장에게로 도착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우리학교 초대 유학생으로 학보에 실린 외국인 유학생들의 처지가 자신이 유학초기에 겪었던 고통들을 잘 지적해 주고 고맙고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글을 보내왔다.

837호 주제기획은 '외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대학관외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막상 취재해 보니 외국인 유학생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있었다. '수강신청이 입학시험보다 어려웠다'고 말하는 그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배려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사실 우리학교의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지만, 영문판은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전부다. 또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들에게 특별강좌도 없고 내국인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움이 되는 타학교의 '비디오텍'조차 없는 것은 그들이 타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연세나 이화여대 등 대부분 학교는 '홈스테이제도'나 '비디오텍' 등이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타학교를 보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힘든 점들을 사람의 정으로 달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이 외에 또 다른 여러 좋은 사례들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취재가 연세대의 이화여대로 국한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보 사회부 차장 김용훈기자가 다녀온 평양방문 이야기는 이번호의 평양방문기에 이어 두 번째였다. 시원한 기사구상으로 읽기 편했다는 평을 받은 사회면은 이번 837호에서는 북녘의 대학생 사진을 전체 배경으로 북녘대학생들의 솔직한 얘기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또 한 세대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 바뀌었다'며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대학생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837호의 전반적인 평가는 한마디로 '좋았다'. 주위의 호평이 기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한 선배는 "기사 내용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외대학보)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837호를 만들면서 기자들조차 외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지 못해 유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이제서야 다른 것은 같이 있었다. 앞으로는 학내 사안이 나 문제점에 대해 발 빠르게 보도하는 (외대학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박지혜 기자 brentgore@hanmail.net

후사의 소리

수확후 농민을 생각하며

지난주 월요일 급하게 말을 먹고 수확을 준비했다. 태풍 피해로 인해농촌에서 한숨짓고 있을 농민들이 떠올랐고, 민중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가장 먼저 그들 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학생인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바로 전국농민회 총연맹에 전화해 걸어 수확을 기쁘게도 이야기를 드려다니, 경상남도 창녕을 소개해주었다.

학교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3일정도를 기다려다니, 총 8명의 학우들이 참가신청을 하였다. 세네기부터 88학번까지 학번분포가 다양했다. 금요일 수업에 다 마치고, 6시정도가 되어서 우리는 창녕남도 창녕으로 길을 떠났다.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그곳에 도착하니, 밤 12시정도가 되었다.

이튿날 마을을 한바퀴 둘러보는데, 정말 상황이 심각했다. 같이 병원에서 놀고, 밭고, 비닐하우스고 다 물에 잠기고 태풍으로 날아가서 현재도 알아볼 수 힘든곳이 많았다. 부경대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창녕지역으로 수확을 와서 같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사실 워낙 피해면적이 넓어서 티도나지 않았다. 우리는 주로 물에 잠기고 비닐에 부수진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새로 짓는 일을 했다. 개인적으로 농촌에 농사일을 해봤지만 이번 일은 매우 힘들었다. 농작물도 한반도 안가본 친구들이 많았지만 정말 일도 열심히 하려고하고, 정말 남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나를 더욱 고무하게 하였다.

쉬는 시간에 농민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였다.

글을 받으니까

저자 : 외대(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체 : 제한 없음 / 연수 : 2003년 10월 4일 / 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독고법 : 학생기자실(학생회장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cdapress@hanmail.net
외대학보와 글과 그림을 쓰는 분들의 글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기초하심 본지는 편집,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외대학보 837호 (2003년 10월 13일) (10월 13일) (10월 13일) (10월 13일)

빵차야 얼른 좀 와

"우리학교의 불편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빵차'이다." 용인배출터 학생이러면, 누구든지 앞의 언급에 공감할 것이다. 이에, 통학과 기숙사 생활을 모두 경험한 본 학교의대생으로서 빵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우선, 통학생에게는 빵차는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특히 내일은 경우 화요일을 해서 늦은시간에 본관에서 도착한지 얼마안되어오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다. 자연적으로 귀가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만약 빵차의 연장운행이 실시된다면, 그동안 교통의 불편으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기 어려웠던 학생들도 다양한 생활을 위해 학교에 남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자

전국은 지금 누드 열풍으로 인한 이상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보는 연예인들의 누드 사진이나 열광이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연일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다.

열풍은 열풍으로 끝날 일이지 열병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연예인들은 누드나도 벗었다고 그리고 인터넷부터 학교의 사극의 몸매와 여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의 여자들을 그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어질 내적 미의 기준은 무시되어지고 있으며 인연가는 사라져 버릴 외적 미의 기준이 되고 있다.

기존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있고,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자신 다이어트나 무리한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회적으로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단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에만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여줄수있는 내적인 모습으로, 가치의 기준을 옮겨야 할때이다. 누드를 찍는 사극형 몸매의 여성보다는 자랑스러운 몸매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누드로 인해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와 내면의 미를 더 가꿔보자.

김진주 (동유럽 · 04호)

전공이면 봐주고 교양이면 죽어!

-상대평가니까

- 과연 누가 볼까? 누가 있나? -A-;;
- 내 밋대도 하세요. -freest
- 벌써 나도 하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안걸리는 방법을 함께 상의한다. -이
- 어차피 남의 인생 아닌가. -관심없음
- 때려준다. -정의의 사도
- 나도 끼워줘. -학원
- 그런 비망직 행동들!! -양심인
- 내가 그 친구다. 오늘 했는데ㅋㅋ. -미안!
- 내 빈 답안지를 슬쩍 내린다. -친아이가
- 다 쓰면 이른다. -최고로 양심
- 함께해요. -평계장
- 절교한다. -Miss범생녀
- 그래야 내 친구지. -유유상종
- 약점잡고 밥 안먹고 우려먹고 뒤 대보 붙인다. -산수
- 무관심(공부하면 피가되고 싫어되는 것을) -초월자
- 그런 친구 없다. -핑자!



제목 : 내 친구가 컨닝을 한다면...

아프리카인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존 맥스웰 쿠체



장태상 (아프리카학과 교수)

존 맥스웰 쿠체는 1940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났다. 네덜란드계 백인 왕위인인 보아인과 영국인의 혈통을 함께 물려받은 쿠체는 어려서부터 영국계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며 성장했다. 1960년대

에는 영국에서 잠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문학을 전공했다. 1983년경 바르도 소재 뉴욕주립대에서 문학을 가르쳤으며 1984년에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되었다. 2002년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하여 현재 아델라이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그는 또 시라고 대학의 석좌교수이기도 하다.

쿠체의 노벨상 수상은 스웨덴 학술회의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물론 죄악적 경찰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나 진보적 경찰의 '문화' 내적인 면의 집적에 대한 거부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때면 '보편적'을 유난히 강조하는 스웨덴 학술회의 공식 입장 은 좀 거슬린다. 확실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인간에 대한 것이 그랬고, 이번에는 쿠체에 대한 것

이 그랬다. 그것을 감안해서인지는 물리다 스웨덴 학술회의 공식 발표문을 보면 "그러면서...를 외면하지 않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쿠체 자신은 남아공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었다. 영의의 apartheid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인(아)의 apartheid는 '인종분리'를 뜻한다. 라틴계의 식민정권이 인종 자체를 뒤섞어 놓는 것이었다면 인종분리는 분명히 인종차별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국적으로 추할 수 있는 양자 사이의 공통성이 어땠던 것에 인종분리는 특정 인종의 우월성이 가장 시작한 방법으로 구현된 변종임에 틀림없다. 쿠체는 이러한 체제 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탁월한 구성과 함축성있는 대사로 묘사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얼핏 자신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고 싶지만 선택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비쳐진다. 수동성은 억압에 대한 미약한 탈출구이다. 쿠체는 이러한 탈출구를 통하여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는 나약함과 패배의 심상함을 파고든다. 쿠체의 소설은 유사한 주제에 정적으로 다루면서도 출중한 힘을 잃지 않는다. 쿠체의 작품들은 기교와 구성 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한다. 드로, 카프카, 베케트, 토스토예프스키와 같은 대가들의 흔적을 느끼면서도 작품들을 계속 따라다니면 공통된 하나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가리웠던 깊은 층층에 압도당하는 주인공들은 역설적으로 모든 외면적인 권위를 벗어던짐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 아프리카(Afrikaans) 17세기 중엽에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인의 후손인 Boer인들이 쓰는 말. 보어인들을 오늘날 아프리카(Afrikaans)라고 부른다.



소중한 꿈이 자라는 곳,
그 꿈을 지켜주는
철이 있습니다



가선 비바람 속에서도 해맑은 아이들 세상,
그 소중한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
피로함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철,
철은 든든한 친구입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